

평화나눔의 시선

2025.04.17. | 창간호 제25-01호

우리는 ‘폭력과 무관심의 짙은 그림자’에 침묵할 것인가?

『모든 형제들』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현안

폭력과 무관심의 짙은 그림자

“우리는 권력, 축재, 분열의 쏠린 이익에 동원되는 폭력과 무관심의
짙은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형제들, 72항)

2024년 12월 3일, 44여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계엄 해제의 과정을 지켜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군사주의라는 문화적 폭력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여 수많은 희생과 죽음을 불러왔다. 21세기의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되어 폭력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보았던 비상계엄과는 다른 형태로 폭력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단지 그 폭력과 분열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문화 축제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 현장과 법원에 무장 침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뒤섞이고, 광장의 시민은 다시금 두터운 차벽으로 나뉘어졌다. 방학 중인 대학교에 들어간 유튜버들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전통과 교육을 통해 쌓아온 최소한의 예의는 온데간데 없고, 폭력적 언사와 망언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사라졌다. 정치와 언론에 의해 주입된 이념적 담론과 선동은 자신이 저지른 불합리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애국을 위해 희생하는 열사로 합리화하고 있다.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격동의 시간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열과 갈등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외세의 작동과 이념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은 또 다른 분단으로 미세하게 나뉘고 있는 느낌이다. 내 편에 모인 사람들은 끈끈한 열정과 에너지로 똘똘 뭉치게 하는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처절하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장 약한 자를 위한 페미니즘 철학, 적까지 사랑하라는 종교적 가치들은 새롭고 구체적인 적을 재창조하는데 오용되고, 결국 자신이 부르짖는 가치를 부인하는 모순적 현상까지 뿔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극복했다고 여기던 분쟁이 고조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국익을 보호한다는 허울아래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를 불려와 사회의식을 결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림자는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어 온 대한민국에도 드리워졌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로 인해 폭력의 실체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폭력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이 드리워질수록, 우리는 폭력을 생산하는 주체와 현상들에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환멸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¹⁾ 환멸은 우리를 체념하게 하거나 무관심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환멸 자체는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일상화된 무관심과 환멸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여 폭력의 문화로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무관심은 결국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환멸은 정의와 평화를 건설하려는 꿈을 뒤흔어진 이상향으로 치부하며 냉소주의자가 되도록 유혹한다.²⁾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마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관심의 짙은 그림자 속에 웅크린 채, 폭력을 잠재적으로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모든 형제들, 30항

2) 모든 형제들, 30항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

“사회는 공동선의 추구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이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정치적 사회적 질서, 관계의 구조, 인간적인 계획을
언제나 재편해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 66항)

먼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안, 지식과 정보들의 ‘진위 여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물결처럼 밀려드는 정보들에 파묻혀, 총체적으로 통합하며 철학하는 인간 고유의 사유 방식을 잃어가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긴밀한 연결망은 만남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고 좀 더 가까이 서로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디지털 세상이 정말 우리를 공동선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³⁾

왜냐하면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들은 “우리의 나약함을 악용하고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려고 설계된 디지털 세상”⁴⁾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이득이나 특정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지성과 운동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본권을 착취하는 데 성공한다. 따라서 개인적 만남의 영역이든 공적 담론의 영역이든, 진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사실들의 ‘가면을 벗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⁵⁾

21세기 인간에게는 특히 사실과 진실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극단적인 거짓 담론을 생성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급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파헤쳐야만 한다. 주교회의와 각 교구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고 고민하며 진리를 전파해야 할 공적 의무를 지닌다.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진술되고 조작된 ‘사실’은 목적을 다하면 휘발되지만, 보편적인 가치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는 변함없이 남아 우리 사회를 지키고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모든 형제들, 205항

4) 호주 주교회의 사회 정의 위원회. 오늘날 디지털 세상 안에서 참다운 인간 적 만남을 실현시킵시다”(Making It Real: Genuine Human Encounter in Our Digital World), 2019.11., 4면.

5) 모든 형제들, 208항

둘째, 반목의 틀을 넘어서 ‘더 나은 정치’를 꿈꾸어야 한다. 현재의 정치는 적을 생성하고 혐오와 적대의 언어로 서로를 구분한다. 더 나아가 상대에 대한 적의를 부추겨 국민을 당파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러한 혐오의 정치,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정치 자체가 불쾌해져서 피하고 싶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때, 정치적 문제를 경제나 다른 이념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난다.⁶⁾ 현재의 사안은 양분된 이념에 국한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건전한 상식과 헌정질서 파괴로 치달는 폭력들이 파시즘과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로 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에서 “형제애를 실현하는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함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⁷⁾ 올바른 정치가 없이는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⁸⁾ “정치의 위대함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장기적 공동선을 배려하는 것”⁹⁾에서 발휘된다. 정치인이란, 개인과 민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며 원대한 목표를 향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바로 눈앞의 선거에만 목매는 근시안이 아니라,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하여 튼튼한 집을 짓는 건강한 사회의 건축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¹⁰⁾

셋째, 좋은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만남의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만남의 문화란, 서로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하여 대화하는 삶의 방식이다. 특히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는 만남의 여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의 존재와 권리를 무시하면 언젠가 예기치 않은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¹⁾ 지금 나타나는 형태의 폭력도 그동안 무시하고 묻어두었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소통 부재에 기인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틀 안에서 동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이들의 견해를 청취할 기회나 질문할 기회도,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목소리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이는 좋은 대화의 플랫폼을 만나면 합의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하여 적대감을 조장하는 나쁜 정치를 만나면 극단주의와 폭력을 일으키는 강한 기폭제로 작용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안정,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성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6) 모든 형제들, 176항

7) 모든 형제들, 154항

8) 프랑스 사회 주교 위원회, 선언 「정치를 되살립시다」 (Réhabiliter la Politique), 1999.2.17.

9) 참미받으소서, 178항

10) 모든 형제들, 188항

11) 모든 형제들, 216-219항

찾는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내고 적과의 투쟁에서 그 의미를 찾게 만드는 극단적인 정치와 결합될 때, 솟아나는 강렬한 에너지와 열정은 타자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으로 치닫게 된다.¹²⁾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건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해야 하는 교회의 책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은 진정한 ‘대화 상대자’와 ‘중재자’로서 평화의 장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¹³⁾ 그러므로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고, 증오를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장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길을 열어가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유례없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 된 이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한다.

참다운 화해는 갈등을 극복함으로 얻어집니다

“참다운 화해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화해는 오히려 갈등 속에서, 대화와 투명하고 성실하고 인내로운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244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인류와 보편적인 형제애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교회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⁴⁾ 그렇기에 교회는 더 나은 세상의 건설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¹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다운 화해와 형제적 인류애를 바라는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12) 양권석,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00>; Achille Mbembe, “The Society of Enmity”, *Radical Philosophy*, 200 (Nov/Dec, 2016), pp. 23-24.

13) 모든 형제들, 284항

14) 모든 형제들, 276항; 진리 안의 사랑, 11항

15) 모든 형제들, 276항;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8항

공적 차원에서 교회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통한 성찰뿐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대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회가 마련한 기틀을 바탕으로 본당에서는 평화와 형제애의 메시지를 교육과 강론에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¹⁶⁾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미, 영성의 형제적 차원,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에 대한 확신, 모든 이를 사랑하고 환대하도록 동기를 북돋울 수 있다. 교구에서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서로 대화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각자의 자리를 마련”¹⁷⁾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시민들과 연대하며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대화를 위한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평화는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대화를 통해 이해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류가족의 구성원이며 서로의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사순과 부활의 시기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보낸 고난의 여정은 유혹을 극복하고 공생화를 시작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고, 마지막까지 폭력을 거부했던 삶은 부활로 완성을 이루었다. 우리에게도 이번 여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건하느냐 아니면 폭력의 정치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이념과 양극화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담론으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력에 놀아날 것인가, 시민 각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을 확고히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세속화된 신학과 침묵하는 종교가 2차 세계대전과 인종 학살을 자행한 독일 나치를 정당화하는데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자못 섬찟하다. 혐오의 정치를 종교화하면서 나치즘은 아주 쉽고 교묘하게 신자들의 틈을 파고들었고, 그들을 동조하게 하거나 침묵시켰다. 독일 교회의 뒤늦은 후회를 우리가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6) 모든 형제들, 83항

17) 모든 형제들, 190항